

통합단체장 자질, 경제 발전 추진력·행정 전문성 갖춰야

광주일보·리얼미터 - 전남광주통합단체장 지방선거 여론조사

소통과 통합 리더십도 중요…정치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아
후보 선택 최우선 고려 사항에 행정 경험 및 성과와 도덕성 꼽아

광주·전남 유권자들은 첫 통합 특별시장의 최우선 자질로 '경제 발전 추진력'을 꼽았다.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관심 속에서 시도 통합에 따라 해마다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받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활용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인물들 특별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.

특히 첫 특별시장에게 '정치적인 요소'보다는 경제 발전을 위한 '행정 전문성' '소통과 통합'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.

또 초대 통합단체장을 선택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로 '행정 경험 및 성과'와 '도덕성 및 청렴도'를 가장 많이 선택하는 등 지역 유권자들은 '제대로 행정을 펼칠 사람'을 통합시장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를간 광주시와 전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별시장에게 경제 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.

통합자치단체를 이끌 초대 통합단체장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을 묻는 질문에 '경제발전 추진력'이 29.8%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 이어 '행정 전문성' (25.4%) '소통과 통합 리더십' (23.7%) 순이었다.

이는 차기 통합단체장으로 경제와 행정리더십을 모두 균형 있게 갖춘 인물을 기대하고 있다는 여론 결과로 해석된다.

반면, '정치적 영향력'은 15.4%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.

'경제 발전 추진력'을 중요 자질로 꼽은 응답자는 지역별로 광주시(30.4%)에서, 연령대별로는 만 18~29세(37.6%),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(41.6%)에서 전체 결과 대비 높았다. '행정 전문성'에 대한 응답자는 광주시(26.0%), 40대(30.1%), 개혁신당(38.4%) 지지층에서 두드러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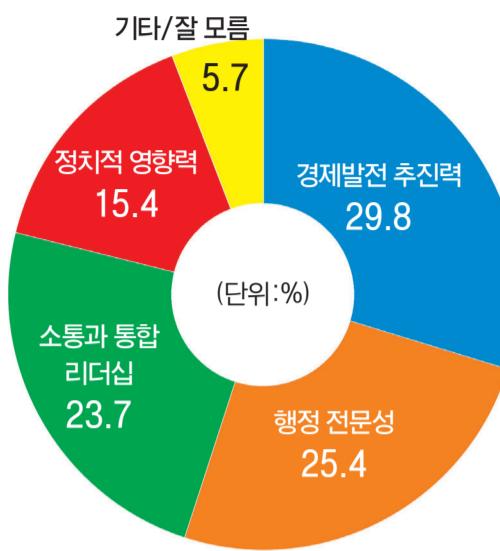
또 '후보 선택 시 최우선 고려 사항'을 묻는 질문에는 '행정 경험 및 성과' (39.1%)를 가장 많이 꼽았다. 이어 후보의 '도덕성 및 청렴도' (24.0%)와 '정책 비전 및 공약' (21.6%)이 높은 비중을 보이면서 주요 고려 요소로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.

최우선 고려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도 '정치적 판단'은 떨려났다.

한편 이번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 전화 가상번호 100% 자동응답조사로 진행됐으며, 95% 신뢰수준에 표본오자는 ±2.5%이며 응답률은 7.1%이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

■ 통합단체장 최우선 자질



서, 성별로는 여성(40.5%), 이념 성향별로 중도층(42.4%), 지지 정당별로 진보당(43.8%)에서 전체 결과 대비 높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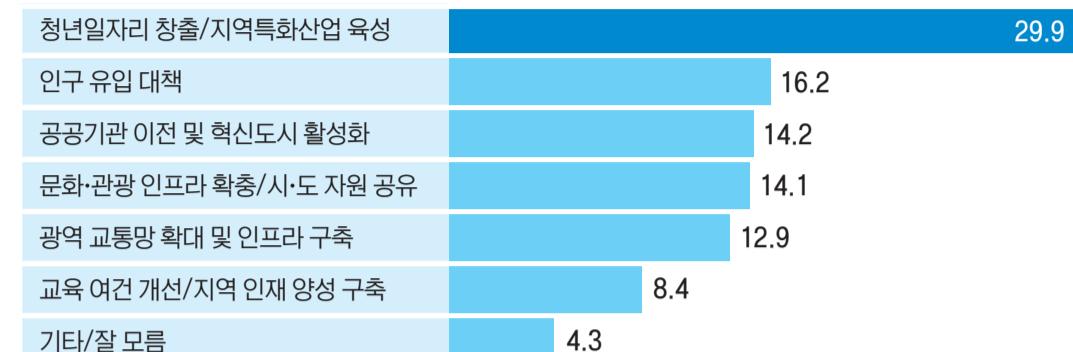
'도덕성 및 청렴성'에 대한 응답자는 전남도(27.0%), 60대(29.5%), 국민의힘(34.1%) 지지층에서 두드러졌다.

한편 이번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 전화 가상번호 100% 자동응답조사로 진행됐으며, 95% 신뢰수준에 표본오자는 ±2.5%이며 응답률은 7.1%이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

■ 전남광주특별시 역점 추진 사업

(사례수: 1502·단위: %)



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역점 추진 사업

청년 일자리 창출·지역특화산업 육성

다.

이어 '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'가 14.2%를 기록했다. 특히 빛가람혁신도시가 위치한 광주 인접권(17.9%)에서 높게 나타났는데, 광주 인접권 응답자들은 인구 유입대책(16.7%)보다 혁신도시 활성화가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봤다.

또 '문화·관광 인프라 확충 및 시·도 자원 공유'(14.1%), '광역 교통망 확대 및 인프라 구축'(12.9%) 등 사업도 두 자릿 수를 기록, 높은 필요성을 보였다.

문화·관광 인프라 확충은 남구(17.8%)와, 전남 중서부권(16.4%)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, 광역 교통망 확대가 시급하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다른 사업보다도 높게(22.8%) 나타났다.

이밖에 '교통 여건 개선 및 지역인재 양성 구축'은 8.4%를 기록했는데, 지역별로는 광주 동구(12.3%)와 남구(12.2%)에서 높은 반면, 인구 감소지역이 많은 전남 중서부권과 남부권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. '기타/잘모름'은 4.3%였다.

이번 조사는 광주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광주시와 전남도 내 만 18세 이상 남녀 150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. 통신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됐다. 표본오자는 ±2.5%포인트(95% 신뢰수준)이며 응답률은 7.1%였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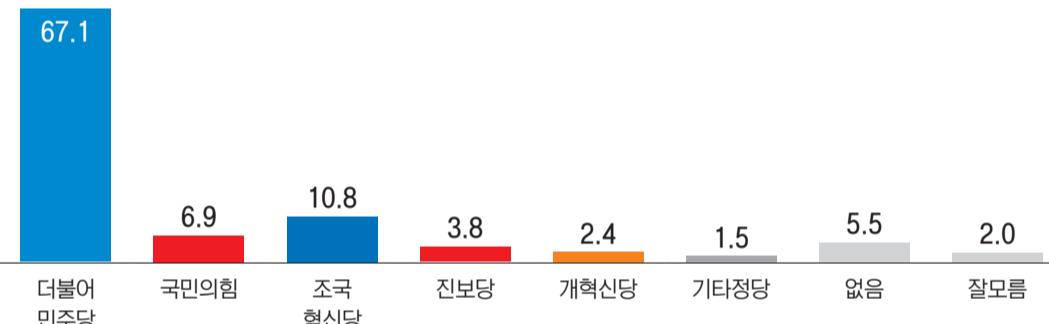
/김민석 기자 mskim@kwangju.co.kr

정당지지도, 민주당 67.1% 압도적 1위

조국혁신당 10.8%

국민의힘 6.9%·진보당 3.8%

■ 정당지지도



(사례수: 1502명, 단위: %)

광주·전남 행정통합 국면에서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광주·전남에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번 광주일보 '광주전남통합단체장 지방선거 여론조사'에서 평소 지지하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7.1%로 가장 많았다.

10명 중 7명가까이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. 조국혁신당은 10.8%로 그 뒤를 이었다.

이어 국민의힘(6.9%), 진보당(3.8%), 개혁신당(2.4%) 순으로 조사됐다.

기타정당은 1.5%, 무당층은 5.5%, 없음은 2.0%였다.

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전남에서 68.4%로, 광주(65.4%)보다 극소하게 높았다.

세부적으로 광주에서 광산구가 69.4%, 전남에서 중서부권이 75.1%로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.

성별로는 여성(71.9%)이 남성(62.4%)보다 민주당 지지세가 많았다. 조국혁신당은 여성(8.5%)보다 남성(13.0%)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.

국민의힘 지지율은 여성(3.8%)보다 남성(10.1%)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.

또 민주당 지지는 70세 이상(73.3%), 60대(73.8%), 50대(72.3%), 40대(71.2%)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.

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100% 자동응답(ARS) 방식으로 진행됐으며, 응답률은 7.1%였다. 표본오자는 95% 신뢰수준에서 ±2.5%p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.

/도선인 기자 sunin@kwangju.co.kr

광주일보 74년 - 유튜브 3천만뷰 돌파



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!

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

광주문화신협



자산규모
1조 5천억원

창립 이후
30년 연속 흑자경영

복지장학재단 운영

당기순이익의
9% 이상 지역사회 환원

광주문화신협
대표번호 1644-7990

· 본점 · 여신사업부 · 양산지점 · 운암지점 · 매곡지점 · 첨단지점 · 동광주지점 · 문흥지점 · 동림지점 · 각화지점